

실내공간의 기호학적 공간분석에 관한 연구

- 그레마스의 기호사변형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Analysis Method of interior Space by Semiotic Approach

- Focus on Gramas's square of the semiotic -

박진배* / Park, Jin-Bae

이수영** / Lee, Soo-Young

조종현*** / Cho, Jong-Hyun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lements forming interior design and to examine dimensional relationship among the elements which form space through the comparison of the spatial language and semiotics of space for the component of interior design. In addition to that, it intends to derive the principle of design which dominate interior design and the inherent diversified meaning by comparing those elements with the square of semiotic used in semiotics. Through this comparison, the meaning of constituent forming space which can be observed through the comparison of square of semiotic, has redefined flexibility among relational system of elements and this flexible concept make the scope of environment including human being broad and enriched. This study, first of all, analyzes various phenomena of social culture, review semiotics meta-learning and examines back theoretical ground of semiotics which is needed for space analysis.

Second of all, in the area of presenting an analysis tool for meaningful analysis this report introduces the square of semiotics which was invented A. J. Greimas in order to analyze the meaning of literary work and define, three categories of the progressive research method for the analysis of interior design and research itself.

Finally, as for the analysis of meaning for interior design, this report sets the space and analyzes the space in accordance with the method and research procedure. being

키워드 : 기호학, 분석방법, 실내공간

1. 서론

1.1. 연구의 목적

오늘날의 실내환경은 근대 디자인의 기능과 합복적성의 충족만을 추구하던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 보다 다양한 의미의 창출을 위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장르의 혼합, 다양성, 혼재성, 혼구성에서 보여지는 것 같이 현시대의 문화적 이념과 이데올로기와 같은 시대의 가치 개념들과의 통합적인 이해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실내환경의 분석에 있어서 체계적인 원리에 입각한 보다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내용으로 이끌 수 있는 분석방법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러한 체계적 원리에 의한 분석방법은 실내환경의

구성에서 보여질 수 있는 함축적인 부분과 모호한 부분의 해석에 있어서 주관적이고 추상적으로 흐를 수 있는 실내환경의 의미를 객관화시킬 수 있다.

본 연구는 실내환경에 있어서 이러한 디자인의 구술방식을 기호학적 분석방법에 적용시켜서 추상적이거나 모호하게 흐를 수 있는 공간의 분석을 구체화, 객관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그로 인해 생성된 의미들을 담론화시켜서 결과적으로 실내환경을 분석하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방법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단계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한다.

- 1) 기호학의 이론적 배경과 의미생성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고 실내환경 분석에 적용시키기 위한 사항들을 연구한다.
- 2) 실내환경 분석에 사용될 평가언어를 사회문화적측면, 공간구성적

* 정희원, 한성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조교수, 공학박사

** 정희원, 강릉대학교 강사

*** 정희원,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산업디자인학과 석사과정

- 측면, 조형미학적측면의 세 가지 관점으로 분류하고 각범주에 해당하는 개념언어를 도출한다.
- 3) 공간 분석을 위한 실내디자인의 구성체계에 대해 알아보고 공간분석요소를 다섯개의 항목(벽/바닥/천장, 가구, 조명, 색채, 재료/질감)으로 한정한다.
- 4) 실내환경의 기호학적 분석방법으로 기호학자 그레마스(A. J. Greimas)의 기호사변형을 응용하여 실내환경을 분석할 수 있는 하나의 분석도구로 체계화한다.

2. 환경의 의미분석을 위한 기호학적 방법론의 제시

2.1. 공간 기호학이론의 전개

공간 기호학에 대한 논의는 의미생성의 조건뿐만 아니라 표현면과 내용면 사이에 존재하는 의도성을 이해하는 데 있다. 이와 같은 의도성은 기표의 선택에 있어서 계열적(선택) 차원의 의도성에서부터 형상의 위상적 배치를 통해 나타나는 통합적(구성적) 차원의 의도성에 이르기까지를 포함한다. 공간 기호학에 의한 환경의미의 탐구는 담론을 생성하게 되는 과정을 이루며 생성된 담론은 다시 환경이 장소성¹⁾을 가지게 하는 특성을 제공하게 된다. 다른 한편으로 공간 기호학은 대조적인 사고, 사물들의 혼돈상을 초월하여 반대되는 것들을 공존하게 함으로서 양면적인 형상들로 이루어진 심층구조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²⁾ 결국 공간의 형식은 상호대립되는 차이, 즉 이질적인 관계 속에서 개념화되며 의미를 갖게 된다고 할 수 있다.

공간기호학은 그레마스(A. J. Greimas)에 의해 그 학문적 배경을 가지게 되고 환경 의미를 분석하는 학문으로 전개된다. 그레마스는 소쉬르와 엘름슬레우의 이론을 계승하면서 현대 기호학 및 후기 기호학의 사상을 발전시킨 이론가로 텍스트가 보다 광범위한 의미를 생성할 수 있도록 한 차원 높은 담론으로 끌어올리는 작업을 진행한다. 그의 주된 관심은 기호가 갖는 역동적인 의미의 생성과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텍스트의 담론화를 위해서는 텍스트를 체계(體系)로서의 이해할 것을 강조한다.³⁾

2.2. 환경의미분석을 위한 기호사변형과 적용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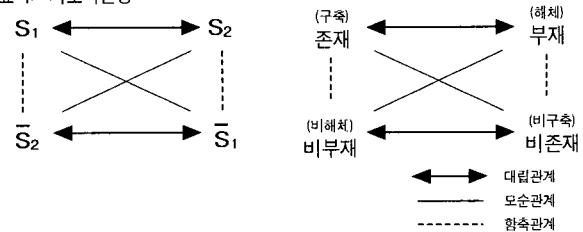
환경분석에 있어서 기호작용의 지속성은 기호의 모호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낯선 기호들에 의한 기호작용은 기호의 의미파악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되면서 환경담론을 생성해내는 배경이 된다. 이러한 기호의 모호성은 기호들의 낯선 구성법칙에 의해 생성되는데 이러한 익숙하지 않은 구성방식에서도 의미를 발현시킬 수 있

도록 고안된 것이 기호 사변형이다. 기호사변형이 갖는 의미생성 구조는 의미의 혼란한 관계 속에서도 대립, 모순, 합축관계에 의한 역동적인 방법을 통해 환경의 새로운 의미를 찾고 환경에 대한 인식을 재조직한다. 이러한 시도는 환경 자체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인간이 환경을 바라보는 사고체계의 변화라고 볼 수 있으며 지배적인 생각과 규범 이면에 숨어 있는 상대적 의미를 발굴해내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1) 텍스트의 의미분석을 위한 기호사변형

기호사변형의 구조는 두 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조의 빠대가 되는 심층적인 변별요소가 기호사변형의 상부의 구조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렇게 확립된 변별요소의 변형으로 또하나의 구조가 하부에 위치함으로써 기호사변형이 완성된다.⁴⁾ 기호사변형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호학은 언어 내에서 작용하는 두 가지의 대립관계, 즉 대립과 모순을 인식한 구조언어학적인 지식을 이용한다.⁵⁾ <표 1>은 기호사변형에 위치하는 변별적 자질들을 각각의 위상적 관계로 도식화시킨 것이다. 기호사변형의 이해를 돋기 위해서 각 변별항의 위치에 비교적 쉬운 개념들을 배치시킴으로써 기호사변형의 구성원리를 설명하는 예를 들어 보았다.

<표 1> 기호사변형



기호사변형의 잇점은 하나의 개념을 일괄성있게 조직할 수 있다는 데에 있으며 논리적으로 존재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실현되지 않은 것들을 예상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추상적이거나 모호한 예술작품의 분석에 있어서도 그 의미를 발현시킬 수 있는 도구로서 사용될 수 있다.⁶⁾

<표 2> 의미생성의 행로

개념언어와 도출	건축환경의 의미의 균형과 형상성을 지원해주는 의미소의 발견
1차분절	도출언어의 대립관계에 의한 의미의 생성
2차분절	기호사변형의 역동적구조(대립, 모순, 합축관계)에 의한 의미생성, 메타담론의 형성
담론구조의 현실화	집재적구조(narrative structure) → 구체적 담론구조(discursive structure)로 발전

2.3. 기호학적 분석을 위한 실내환경의 새로운 시각

실내공간은 복합화된 기호들의 체계라 할 수 있으며 디자이너는

1) 장소의 성격은 그 속에서 생활하는 사람이 직접 느끼는 공간의 질서 및 특성, 빛, 시간등에 의해서 형성되며 이러한 요소들은 시각화(symbolization), 보완화(complementation)의 과정을 통해서 장소성을 이루게 된다.

2) Jean Marie Floch, 조형기호학, 박인철 역, 한길사, 1994, p.20.

3) Parret H., 현대기호학의 흐름, 김성도 역, 이론과 실천, p.222.

4) Jean Marie Floch, 상계서, p.38.

5) _____, 상계서, p.38.

6) _____, 상계서, p.41.

자신의 작품에 계열축의 선택과 통합축의 조합에 의해 그 의도된 흔적, 혹은 개인적인 기호를 삽입하게 된다. 여기서 '디자이너에 의한 선택'이란 계열축에서 선택 가능한 여러 디자인 언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것을 말하며 통합체란 선택된 디자인 언어를 어떠한 방식으로 배열한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일어나는 곳으로 계열체와 통합체는 이미지 창조의 두 중심축이 되는 것이다.

로저 스크루톤(Roger Scruton)은 “건축의 본질은 공간에 있지 아니하고 공간을 경계 지워 둘러싸는 것, 또는 폐쇄된 형태로서의 공간에 있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다시 말해 실내에서의 인간의 감각은 단순히 빈 공간에 따라 결정되지 않고 실내에 사용된 개체들과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라고 설명된다.⁷⁾

브루노 제비(Bruno Zevi)는 공간을 보는 또 다른 방법으로 물체들 사이의 관계를 찾아내는 것을 제시하는데 이것은 실내를 구성하는 벽, 바닥, 천장, 등과 같은 구성요소들의 관계의 중요성을 의미하고 있다. 또한 이들을 위한 실내의 디테일들이 실내의 성격을 결정짓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말한다.⁸⁾ 하이데거(Martin Heidegger)는 “물체는 위치를 차지하며 위치를 갖고 있는 것만이 공간으로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동일한 물체라 하더라도 그 물체의 놓이는 위치에 따라 공간의 성격이 변화될 수 있는 특성을 말하는 것으로 물체는 공간에서 놓이는 위치에 따라, 또 주위의 상황과의 의미작용을 통해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하고 있다. 이때 ‘물체’는 의미를 지니는 기호가 되며 궁극적으로는 공간의 성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작용하게 되는데 이러한 가정에서 결국 공간은 ‘공간’에서가 아니라 ‘위치’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이라는 명제가 성립할 수 있다.

2.4. 공간 분석을 위한 개념언어 도출

기호학적 분석의 특징은 공간의 분석을 위한 의미의 범주화가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다. 따라서 공간의 성격을 반영하는 개념언어를 메타 텍스트로 두고 이 개념언어의 대립을 통한 분석작업을 시작으로 의미의 분석 진행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건축과 실내공간의 분석을 위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차원을 세 가지로 구분하고 각각의 측면에서 파생될 수 있는 개념언어를 도출한다.

(1) 사회 문화적 측면

- 보편성 / 특수성
- 현대성 / 전통성
- 남성적 / 여성적
- 자연성 / 인공성
- 동양적 / 서양적
- 텍스트성 / 컨텍스트성

사회문화적 측면에서의 건축·실내환경은 문화적인 차원에서 이해해야 함을 말하는 것으로 건축·실내환경이 단순히 독립된 물리적 실체로 한정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2) 공간 구성적 측면

- 개방성 / 폐쇄성
- 구축성 / 해체성
- 연속성 / 단절성
- 기반성 / 고정성
- 상대성 / 상보성
- 분절성 / 통합성

공간 구성적 측면에서는 3차원적 공간을 이루는 공간구조를 인간과 커뮤니케이션의 한 형태로 보고 공간을 형성하는 구성요소들의 존재방식과 의미작용에 관한 접근을 시도한다. 공간을 이루는 공간구조, 가구, 조명, 색채, 질감 등을 공간 안에서 지각적 변수로 작용함과 동시에 코드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한다.

(3) 조형미학적 측면

- 복잡성 / 단순성
- 명료성 / 모호성
- 정식성 / 순수성
- 신비성 / 식별성
- 입체성 / 평면성
- 질서성 / 혼돈성

실내환경과 내용은 변증법적인 관계로 서로를 완전하게 하는 상호 보완성을 갖는다. 조형미학적 공간을 기술하기 위해서는 실내환경을 감각의 대립과 비교를 통해 서로 다른 미적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지각적 구조화를 실현시킴으로써 미적가치를 얻을 수 있게 된다.

3. 실내 환경 디자인의 공간 기호학적 분석

3.1. 실내분석을 위한 대상공간의 설정

본 연구에서 분석 대상으로 삼은 실내환경은 대학로에 위치한 ‘S’ 바(bar)⁹⁾다. ‘S’ 바는 일반적으로 여러 계층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식음 공간으로 다양한 문화적 환경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S’ 바는 그 구성방식에 있어서 일반적이지 않은 낯선 구성방식으로 인해 모호한 공간으로 인식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공간의 모호한 성격을 기호사변형의 대립, 모순, 합축의 역동적인 의미작용 방식에 적용하여 대상공간의 의미를 보다 객관화하고 구체화시키기 위한 실험적 모델로서 선택하였음을 밝혀둔다. 따라서 대상공간은 기호사변형에 의한 기호학적 분석과 함께 앞의 2-4에서 제시한 실내환경을 바라보는 세 가지의 관점의 조망을 통하여 다각적인 분석을 끌어내며 추상적이지 않고 보다 객관적인 의미의 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 기호사변형에 의해 형성되는 2차 의미는 명시적인 상황의 내면에 숨어 있는 함축적인 의미를 발현시키는데 이러한 의미의 발현은 또 하나의 창조적인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3.2. 기호학적 분석방법에 의한 의미생성행로

기호사변형에 의한 공간의 분석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의미생성의 단계를 필요로 한다.

첫째, 기호학에서의 의미생성원리인 이항대립을 이용하여 공간에

9)(연구자 주) : 대상공간 : ‘설’, 설계자 : 최정화, 분석을 위한 자료는 월간 인테리어 1996년 8월호의 시각자료를 참고하였으며 연구자의 직접적인 공간 분석에 의해 진행되었다.

7)Joy Monice Malnar, 인테리어 디멘션, 박영순 역, 디자인 하우스, 1996, p.387.

8) _____, 상계서, p.1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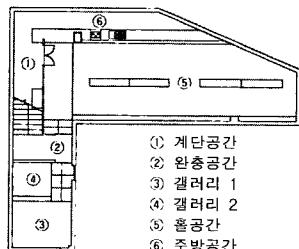
서 가장 두드러지게 변별되는 두 개의 공간을 선정하여 대립시켜 기호사변형의 변별항에 위치시킨다.

둘째, 대립된 두 공간에서 가장 1차적으로 변별되는 특징을 나타내는 메타언어의 대립에 의해 생성되는 의미들을 벽, 바다, 천장과 같은 공간구성 요소별로 정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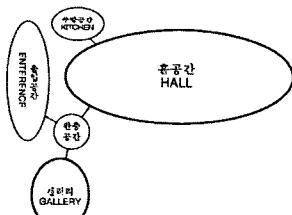
셋째, 기호사변형의 대립, 모순, 함축의 관계에서 파생되는 2차 대립개념을 구축한다. 이때의 생성되는 의미들은 1차 대립과 모순관계에 있는 개념들로 변증법적 관계를 이루며 상호보완적 개념으로 해석된다.

(1) 공간의 구획화

대상공간은 네 개의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공간은 변별적 특성을 지니면서 공존하고 있으므로 이 절에서는 전체공간을 이루고 있는 각 공간들의 존재방식을 기호사변형을 이용하여 정리하고자 한다.



<그림 1> 대상공간의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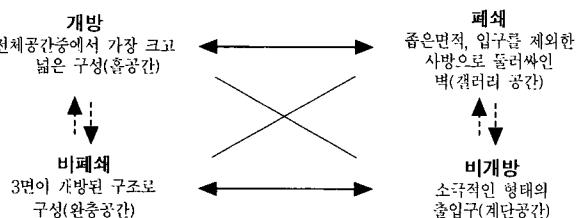


<그림 2> 대상공간의 위상적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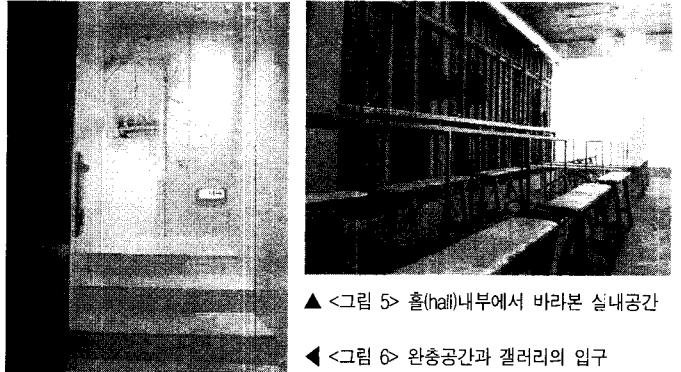
(2) 기호사변형에 의한 실내공간의 위상적 관계파악

대상공간의 출입구와 연결된 계단을 내려가면 홀과 갤러리를 연결되는 완충공간이 위치하는데(이 공간은 선택적인 공간체험을 할 수 있는 과정적인 공간의 성격을 갖는다), 이 완충공간은 다시 홀 공간과 갤러리 공간으로 연결된다. 이들 공간은 '개방'과 그 대립개념인 '폐쇄'를 메타 언어로 하여 공간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으며 각각의 공간들이 서로 어떠한 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져 있는가 하는 것을 기호사변형에 적용하여 나타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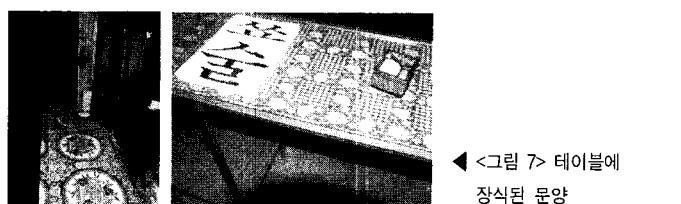
<표 3> 대상공간의 구성방식의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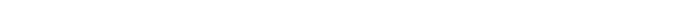
▲ <그림 4> 홀(hall)내부에서 바라본 실내공간



▲ <그림 5> 홀(hall)내부에서 바라본 실내공간



◀ <그림 6> 완충공간과 갤러리의 입구



◀ <그림 7> 테이블에
장식된 문양

공간의 분석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파악되는 1차적인 변별사항의 발견에 의한 메타텍스트의 선정과, 이러한 메타 텍스트를 지원하기 위한 요소들이 어떠한 원리로 계획되었나 하는 공간구성 원리의 발견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우선, 공간을 형성하는 구성방식과 그 크기에 있어서 가장 크고 넓은 홀 공간을 '개방'의 변별항에 위치시키고 상대적으로 작고 좁은 공간인 갤러리를 '폐쇄'의 변별항에 놓음으로써 기호학적 의미분석을 시작할 수 있다. 개방과 폐쇄의 관계는 전체 공간에서 우선적으로 파악되는 1차적인 변별요소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이들의 대립관계에서 또하나의 대립관계인 '비개방'과 '비폐쇄'의 항이 파생되는데 '비개방'의 의미는 개방적이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폐쇄적이지 않는 개념으로서 완충공간의 성격과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완충공간은 공간이 협소함에도 불구하고 갤러리와 홀의 접근에 있어서 선택적 가능성을 열어놓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으며 한쪽 벽을 제외한 나머지 세 벽이 개방되어 있는 비폐쇄적인 공간으로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대상공간의 출입구와 계단공간은 기호사변형의 '비개방'의 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출입구의 좁고 소극적인 문의 형태와 계단공간을 둘러싸고 있는 벽으로 인한 시각적 차단, 그리고 출입구에서 진입하는 방향으로 전방의 막힌 벽면은 이 공간을 비개방적인 성격으로 만들고 있다.

3.3. 기호학적 분석방법의 대상 공간의 적용

기호학에서는 이항대립에 의한 분절을 통하여 의미가 생성되는데 이러한 이항대립에 의한 의미생성원리를 이용하여 공간분석을 시도할 수 있다. 우선, 공간분석을 위해서는 이항대립을 위한 공간의 선정이 가장 먼저 행해져야 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식음행위가 이루어지는 홀(Hall)공간과 관람행위를 위한 갤러리(Gallery)공간을 기호사변형의 각 변별항에 위치시킴으로써 기호학적 의미생성을 위한 구조를 형성한다. 기호사변형에 의한 의미분석은 명시적인 의미와 함축적인 의미를 동시에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으며 특히 2차 분절에 의한 모순과 함축관계의 형성은 실내환경이 더 이상 정태적이지 않은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1) 사회문화적 측면

1차 분절에서 홀 공간은 일반적인 식음공간으로서의 기능을 만족

<표 4> 1차분절:보편성/특수성

	홀공간 보편성	갤러리 특수성
벽/바닥/천장	·식음공간으로서의 홀의 기능을 갖추는 일반적인 실내공간	·협소한 바닥면적으로 인한 밀착관람형태 초래 ·바닥의 레벨(Level)차로 인한 다양한 시점에서의 작품감상
가구	·식음행위의 기능을 충족시키는 가구의 선택	·가구가 준비되어 있지 않음
조명	·식음공간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백열램프와 할로겐램프의 사용	·일반적인 갤러리의 조명방식과 다른 상향조명방식(uplighting) 사용
색채	·친숙한 재료의 자연색 사용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색채(노란색)를 공간 전체에 사용
재료/질감	·익숙한 재료들의 사용(나무, 철재, 콘크리트)	·전시벽면이 광택있는 질감

<표 5> 2차 분절 : 비보편성 / 비특수성

홀공간 - 보편성	갤러리 - 특수성
·식음공간으로서의 기능을 갖춘 일반적인 실내공간 ·식음행위의 기능을 충족시키는 가구의 선택 ·식음공간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백열램프와 할로겐램프의 사용 ·일반적이고 익숙한 재료들의 사용(나무, 철재, 콘크리트)	·공간의 협소성으로 인한 전시물의 밀착관람 형태 초래 ·바닥의 레벨차로 인한 다양한 시점에서의 작품감상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은 색채(노란색)의 사용 ·전시 벽면의 광택있는 질감
↑ ↓	↔
갤러리 - 비특수성	홀공간 - 비보편성
·축소된 전시관의 형태로 전시, 관람의 기능을 갖추는 실내구성 ·작품감상을 위한 충분한 조도의 확보 ·갤러리 벽면의 용도를 만족시키는 밝은 색상 ·전시기능을 보조하는 견고한 재료사용	·벽, 바닥, 천장, 구조체 노출 ·식음기능에 적합하지 않는 의자형태 ·식음기능에 적합하지 않는 낮은 조도 ·일반적인 마감재가 아닌 재료의 사용(거푸집 패널)
↑ ↓	↔

하게 하는 ‘보편성’을 형성한다. 그러나 2차 분절의 연장에서 보면 이러한 대립관계는 ‘비보편성’으로 전환되면서 또하나의 대립항을 형성한다. 즉, 일반적인 식음공간에 맞지 않는 낮은 조도와 입면 구조에 쓰인 재료의 마감방식은 보편적이지 않는 ‘비보편성’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갤러리의 경우 기존의 갤러리와 변별되는 내용으로 지나치게 협소한 공간과 실내에 사용된 색상을 들 수 있는데 이들은 ‘특수성’을 이루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갤러리와 동일하지는 않지만 작품감상을 위한 제반사항을 갖추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특히 갤러리에 쓰여진 조명방식과 사용된 색채는 ‘비특수성’의 내용을 형성한다. 즉, 갤러리의 전체 구성면을 노란색으로 채색한 것은 ‘특수성’에 해당하지만 일반 갤러리의 벽면과 비슷한 명도와 조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비특수성’에 해당하는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다.

(2) 공간 구성적 측면

홀의 넓은 공간감과 갤러리의 협소함이 공간 구성적 측면에서의 주된 변별요소로 간주하고 이때의 메타 텍스트를 ‘개방성’과 ‘폐쇄성’으로 두고 디자인 요소별로 정리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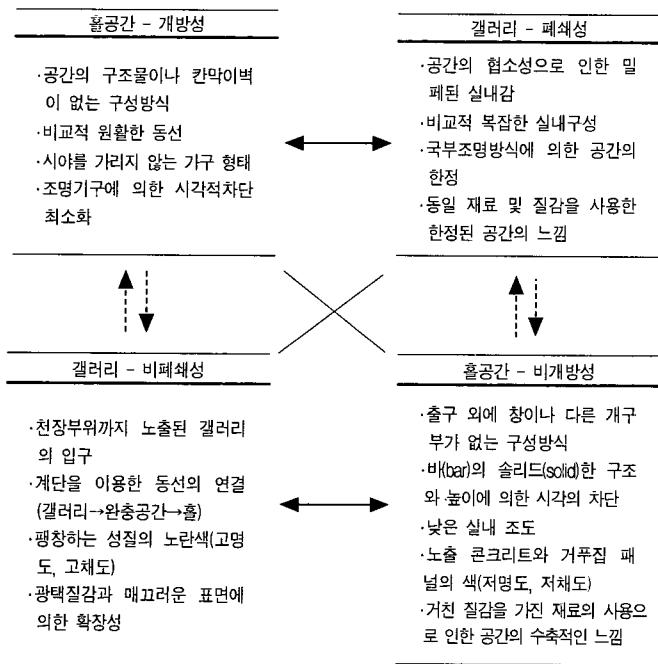
<표 6> 1차 분절 : 개방성 / 폐쇄성

	홀공간 개방성	갤러리 폐쇄성
벽/바닥/천장	·공간의 협소성으로 인한 밀폐된 실내감 ·비교적 복잡한 실내구성 - 두 개의 실로 나누는 내벽 - 레벨차로 이루어진 바닥 ·부자연스러운 동선	
가구	·시야를 가리지 않는 가구형태 - 가구의 평면적 구성 - 등받이 없는 의자 - 부피감이 작아 공간내 비중이 적음	·가구가 준비되어 있지 않음
조명	·조명기구의 천장부착방식에 의한 시각적 차단의 최소화	·국부조명방식(할로겐 스포트)에 의한 공간의 한정
색채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재료/질감	·해당사항없음	·동일재료 및 질감을 사용한 정된 공간의 느낌

홀 공간을 ‘개방성’이라는 메타 텍스트로 놓고 분석했을 때 실의 크기나 칸막이 벽이 없는 실내의 구조 등은 개방적 공간이라는 공간의 성격을 확연하게 나타내고 있다. 반면에 갤러리는 ‘홀’공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좁고 밀폐된 ‘폐쇄성’을 보여주는 공간으로 각 공간들은 ‘개방성’과 ‘폐쇄성’이라는 기호사변형의 외시의미, 즉 1차적 변별항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개방성’과 ‘폐쇄성’의 대립에서 파생되는 2차 분절은 시점의 전환(text play)을 행했을 때 오는 다른 차원에서의 관점으로 또하나의 대립성질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다.

우선 1차적 관계에서 홀 공간은 벽/바닥/천장의 개방적인 구성방식과 시야를 가리지 않는 가구의 형태 등으로 개방적인 공간성격을 가지는 반면 갤러리는 협소한 공간, 밀폐된 실내감으로 인해 폐쇄적인 성격을 가진다. 그러나 2차 분절을 통해 나타나는 ‘비개방성’과

<표 7> 2차 분절 : 비개방성 / 비폐쇄성



'비폐쇄성'에서는 이들의 결정된 공간의 성격을 다시 한번 분절하여 또 다른 대립형을 형성하고 있다. 즉, 홀 공간에서 사용된 재료들의 거친 질감, 한정적인 조명방식, 낮은 실내조도는 비개방적인 성격을 갖게 하며 갤러리의 벽면에 채색된 노란색 특유의 성질과 표면의 광택있는 질감은 비폐쇄적인 성격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이 물리적인 개념의 시각에서 구성요소적 측면으로의 시점의 전환을 통하여 공간의 해석에 있어서 쉽게 드러나지 않는 하부구조를 생성하게 되는데 이 하부구조로 인한 기호들 간의 긴밀한 관계에 의해서 고정된 의미가 아닌 의미의 확장을 시도하는 2차의미가 파악되는 것이다. '비개방성'과 '비폐쇄성'의 관계는 개방과 폐쇄의 관계와 모순을 이루고 있는데 이러한 모순관계는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하면서 함축적인 의미를 발생하고 있다.

(3) 조형미학적 측면

실내 환경을 구축하는 것은 새로운 조형언어를 위한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실내환경 구성요소의 대립과 비교를 통한 서로 다른 미적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지각적 구조화를 실현시킴으로써 대상공간의 조형미학적인 분석을 실행할 수 있다. 조형미학적 측면에서의 개념언어로 '복잡성'과 '단순성'을 선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대상공간의 분석을 진행한다.

홀 공간에서 보여지는 구성요소와 구성방식은 갤러리의 경우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다양하고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다. 홀 공간을 구성하는 다양한 재료와 그에 따른 질감, 다양한 조명기구와 가구, 테이블과 선반의 복잡한 장식들은 갤러리의 단순한 구성요소들과 비교했을 때 1차적으로 가장 변별적인 내용을 보이고 있다. 홀 공간과 갤러리를 각각 '복잡성' '단순성'이라는 메타 텍스트로 놓고 공간분석을 진행한다.

<표 8> 1차 분절 : 복잡성 / 단순성

	홀공간 복잡성	갤러리 단순성
벽/바닥/천장	·건축구조체의 복합적인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식을 배제한 절제되고 간결한 입면 ·좁은 공간으로 인한 단순한 동선
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양한 가구 (시대별, 양식별, 형태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구의 부재로 인한 간결한 공간구성
조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종 광원에서 발생하는 빛과 그림자의 다양한 패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직선에 의한 단순한 조명배치 ·한가지 조명방식에 의한 조명 방식
색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테이블의 구성면을 이루는 다양한 문양과 패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일색상에 의한 채색(노란색)
재료/질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양한 재료들의 사용 (노출콘크리트, 스테인레스 스틸, 거푸집 패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일 재료 및 질감

<표 9> 2차 분절 : 비복잡성 / 비단순성

	홀공간 - 복잡성	갤러리 - 단순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 구조체의 복합적인 구성 ·시대별, 양식별, 형태별로 구성된 다양한 가구 ·테이블의 구성면을 이루는 다양한 문양과 색체 ·다양한 재료들의 사용 (노출콘크리트, 스테인레스 스틸, 거푸집 패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식을 배제한 절제되고 간결한 입면 ·좁은 공간에 의한 단순한 동선 ·가구의 부재로 인한 간결한 공간구성 ·한가지 광원에 의한 조명방식 ·단일색상(노란색) ·단일재료 및 질감(우레탄도장)
	갤러리 - 비단순성	홀공간 - 비복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바닥 및 천장고의 레벨차에 의한 입체적 접근방식 ·특수조명기법(그레이징기법, up lighting)에 의한 조명효과 ·재료의 이중적 질감 (노출콘크리트 + 우레탄 도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벽, 바닥, 천장, 구조체의 평면적 처리 ·구조를 알 수 있는 간결한 가구형태 ·벽과 천장의 무채색 처리 ·벽면의 단위별 재료처리

1차 분절에서 보여지는 홀 공간의 '복잡성'과 갤러리의 '단순성'은 다시 2차분절에 의해서 '비복잡성' '비단순성'의 하부 구조를 이루게 된다. 홀 공간의 입면을 구성하는 복합적인 재료의 사용이나 다양한 광원의 구성은 '복잡성'을 이루고 있는 반면 설치방법이나 구성방법적 측면으로 볼 때 복잡하지 않은 방식을 취하고 있다. 즉, 홀 공간의 벽, 바닥, 천장은 평면적으로 처리되어 있으며 다양한 형태와 재료로 구성되어 있는 가구도 그 구조와 구성방법에 있어서는 복잡하지 않은 방식으로 제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홀 공간을 구성하는 다양한 재료들은 그 사용에 있어서 장식되지 않은 재료 자체의 순수한 색상과 질감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은 2차 분절에 의한 '비복잡성'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갤러리의 경우 벽, 바닥, 천장의 장식을 배제한 간결한 입면들은 구성적 차원에서 '단순성'을 보이는 반면 갤러리 바닥면의 레벨 차에 의한 입체적 접근방식과 갤러리2(그림1에 표기)의 진입시 허리를 굽혀야 될 정도의 낮은 천장고는 단순하지 않은 접근방식을 유도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용자적 측면에서 '단순성'의 2차 분절에 의한 '비단순성'의 항을 형성하는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의 연구 대상으로 선택한 'S' 바(bar)라는 공간은 대립되는 요소의 상호공존하는 원리에 의해서 실내환경의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다. 대상공간의 분석을 위한 기호사변형의 사용을 통해서 단순히 1차분절에 의한 의미의 파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2차 분절 즉, 대립의 대립에 의한 모순관계를 끌어들임으로써 더욱 입체적인 의미의 발현을 가져오게 하고 있다. 모순관계는 의미의 생성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서 사용하지만 1차적으로는 쉽게 파악되지 않는 개념으로 존재하며 이러한 대립, 모순관계의 활용은 분석작업에서 뿐만 아니라 창조적인 디자인을 위한 원리로 적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창조적인 실내 환경의 구성은 2차적 관계를 암시하는 함축적인 디자인 언어의 선택과 조합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가능하며 이들은 의미생성의 두 축이라고 할 수 있는 계열축과 통합축의 적절한 활용에 의해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기호학자 베거(Berger)에 의하면 "모든 텍스트에는 이항대립에 의한 이분법적 구성이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주장으로 텍스트 내에 이항대립이 항상 존재하고 있음을 강조하는데 그에 의하면 이러한 이항대립쌍의 대부분은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은 상태로 텍스트 내에 묻혀 있다고 한다.¹⁰⁾ 베거의 이러한 주장은 실내환경을 텍스트로 간주할 때 모든 실내환경은 이러한 기호사변형에 의한 기호학적 의미 분석이 가능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말로 해석될 수 있다.

4. 결론

실내환경을 인간과 환경과의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관점으로 볼 때 실내환경은 '공유와 전달'의 개념이 아닌 '의미생성 차원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인간과 환경간의 커뮤니케이션은 단지 의미의 전달만을 위한 직선적이고 일방적인 방식이 아닌 기호학적 관점에서의 커뮤니케이션 즉, 의미작용을 일으키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실내환경이 특수한 방식으로 조직화된 언어라고 볼 때 실내환경은 텍스트(text)로 인식되어질 수 있다. 실내환경을 분석한다는 것은 텍스트를 구성하는 실체들의 분석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전정한 실내환경의 이해를 위해서는 외시적 차원에서의 분석과 동시에 쉽게 드러나지 않는 함축적 차원의 분석이 병행되어야 한다.

함축적 차원에서의 실내환경의 분석은 기호들의 의미생성 조건뿐만 아니라 기표와 기의 사이에 존재하는 의도성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더 나아가 기호들의 관계구조 속에서 재정의되는 유연성의 발견을 통해 보다 풍부한 의미의 생성으로의 가능성 을 열어놓는 것까지를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실내디자인이라 하면 실내환경이 기본적으로 지니고

있어야 하는 기능적인 면만을 생각하여 실내 디자인을 작품의 개념으로 접근하는데 있어서 제한된 폭으로 바라보게 되기가 쉽다. 그러나 실내환경을 이루고 있는 기호들의 구조를 파악하고 그 관계 속에 내재되어 있는 의미의 발견으로 인한 새로운 해석을 도출하는 과정을 통해 실내환경에 대한 인식을 확장시킬 수 있다.

기호학적 분석방법은 절대성에 의존하지 않는 상대적 진리관으로써 실내환경을 전체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며 결과적으로 보다 포괄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해 주고 있다. 또한 기호학적 분석에 의해 형성된 환경 남론은 실내환경을 예술적 가치로 전환할 수 있는 창조적인 배경면을 이룬다고 할 수 있는데 실내환경의 새로운 형식과 내용은 변증법적인 관계로 하나의 공간내에서 서로를 완전하게 하는 상호 보완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1. 김경용, 기호학이란 무엇인가, 민음사, 1994.
2. 박정순, 대중매체의 기호학, 나남출판, 1995.
3. 이연숙, 실내 이미지 선호판별 도구, 기문당, 1997.
4. 이두원, 커뮤니케이션 현상에 대한 기호학적 접근,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1994.
5. Bernard Toussaint, 기호학이란 무엇인가, 청하, 1992.
6. Hal Foster, 반미학, 현대미학사, 1993.
7. Jean Marie Floch, 조형기호학, 한길사, 1994.
8. J. M. Malnar, Interior Dimension, 디자인 하우스, 1996.
9. Parret H., 현대기호학의 흐름, 김성도, 이론과 실천, 1997.
10. Bentley I. Responsive Environments, The Architectural Press, 1985.
11. 김아미, 이미지체계로서의 실내환경과 그 표현과정에 관한 연구, 이화대학교 석사논문, 1991.
12. 김주미, 환경의미분석을 위한 기호학적 접근방법연구, 실내디자인학회지 10호, 1997.
13. 류호창, 실내공간에서의 장소성 구현요소에 관한 연구, 실내디자인학회지 7호, 1996.
14. 박진배, 환경행태학적 관점에서 본 건축디자인 평가기준과 환경체계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 1997. 12.
15. 임창섭, 미술작품의 의미구조에 대한 기호학적 접근방법,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4.
16. 최경실, 건축학적 내부공간의 개념과 그 확장 가능성에 대한 연구, 실내디자인학회지7호, 1996.
17. 천의영, 살, 월간 인테리어, 1996. 8.

<접수 : 1998. 7. 27>

10) 김경용, 기호학이란 무엇인가, 민음사, 1994, p.182.